RaonAtti in Pangasinan

Mabuhay! 첫 만남 첫 달 보고서

2013.9.6-2013.9.30

라온아띠 10기 필리핀팀
김보경. 김연. 박진경. 선다희. 우민아

목차

1. 시작
2. 9월 활동요약
3. 기관 / 지역 소개
4. 주요 활동
5. 기타 활동
6. 개인 에세이

팀 소개

라온아띠 10기 필리핀팀을 소개합니다:)

연(Alex)

게이의 취향, 잔반 처리자,
Translator, 비상용 코코넛 상비

다희(Dainey)

You! Impolite!, Hot People, 몸매방너
편식이 심한 식품영양학과생, 피 흘리는 여자

보경(Aurora)

Why~ you~ 얼굴로 대화, 어린이들의 대통령,
오라루, 해외출장 세스코, 뜬금없는 마싸랍

진경(Jun)

I ♥ 부코쥬스, 포커페이스의 황제, 숨막힘(숨 막히는 뒷태),
하얘지고 싶어! BB크림을 팔에 바르는 남자, 나잔다?! 1,2,3 즈르르

민아(Min-Ah)

공간파괴자, 맥락과 포인트를 아는 그녀, 동물 덕후,
Photographer, 앉은자리에서 김부탄 1kg은 거침없는 여자

9월 활동달력

2013 September 09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마닐라 공항 입국 •필리핀 Y 연맹 •마닐라 투어	7 •팡가시난 Y 도착 •환영식 •RaonAtti House입주
8 •지역과 기관 OT •Dagupan City 나들이	9 •Reflection •일정 회의 •Bible Sharing	10 •활동지 Pugaro, Canan Sur 방문	11 •Jimmy's Time •따갈로그어 수업	12 •DCN고교 방문 •WC1초교 방문 •UPANG(대학) 방문	13 •Y 프리스쿨 수영 수업 보조 •Board 회의 참석	14 •Spelling Bee 행사 보조 (고등부) •Spelling Bee (초등부)
15 •휴식 •추석 맞이 한국요리 대접 in RaonAtti House	16 •Reflection •Y사무실 자유시간	17 •Green Agent WS 준비 – Anda섬 답사 및 Plan 회의	18 •Bonuan Dumpsite 방문(관리그룹 / 주민들 만남) •Canan Sur 방문	19 •Dumpsite 회의, 나눔 •Green WS Plan •삼겹살 파티 at Atti House	20 •Y 수영 수업 보조 •YMCA, CFF, NISVA 과거 활동 관련 OT •Ate Lidy 댁 방문	21 •Green Agent WS Station 준비 •홈스테이
22 •홈스테이 •공연 연습	23 •University of Luzon 방문 및 체육대회 참석 •Bible Sharing	24 •Pugaro의 아띠 Project 관련 회의 •영어 수업	25 •Green Agent WS Station 준비 'Waste Segregation'	26 •Green Agent WS Station 준비 •Junk Shop 방문	27 •Reflection •Green Agent WS 준비 마무리	28 •Green Agent WS in Lingayen, Anda Island
29 •Green Agent WS 둘째 날	30 •Bible Sharing •이전 Y President 조문					

9월 활동내용

'2주의 Exposure와 2주의 Project Plan, 그리고 관계맺기'

〈YMCA 배우기〉

- 필리핀 YMCA 연맹 만남, Orientation
- 팡가시난 YMCA Orientation
- 팡가시난 YMCA Board 회의 참석

〈Y활동〉

- 1st Green Agent Workshop
- 4th Annual Spelling Bee 행사 보조
- 팡가시난 YMCA Preschool 수영 수업 보조
- Bible Sharing
- Reflection

〈지역 알기〉

- Project 활동지 방문 및 플랜
  - Brgy. Pugaro
  - Bonuan Dumpsite
- 후기 활동지 Brgy.Canan Sur, Malasiqui 방문
- 지역 학교 방문
  - West Central Elementary School
  - Dagupan City National High School
  - Anda National High School
  - University of Pangasinan
  - University of Luzon
- Manila / Dagupan City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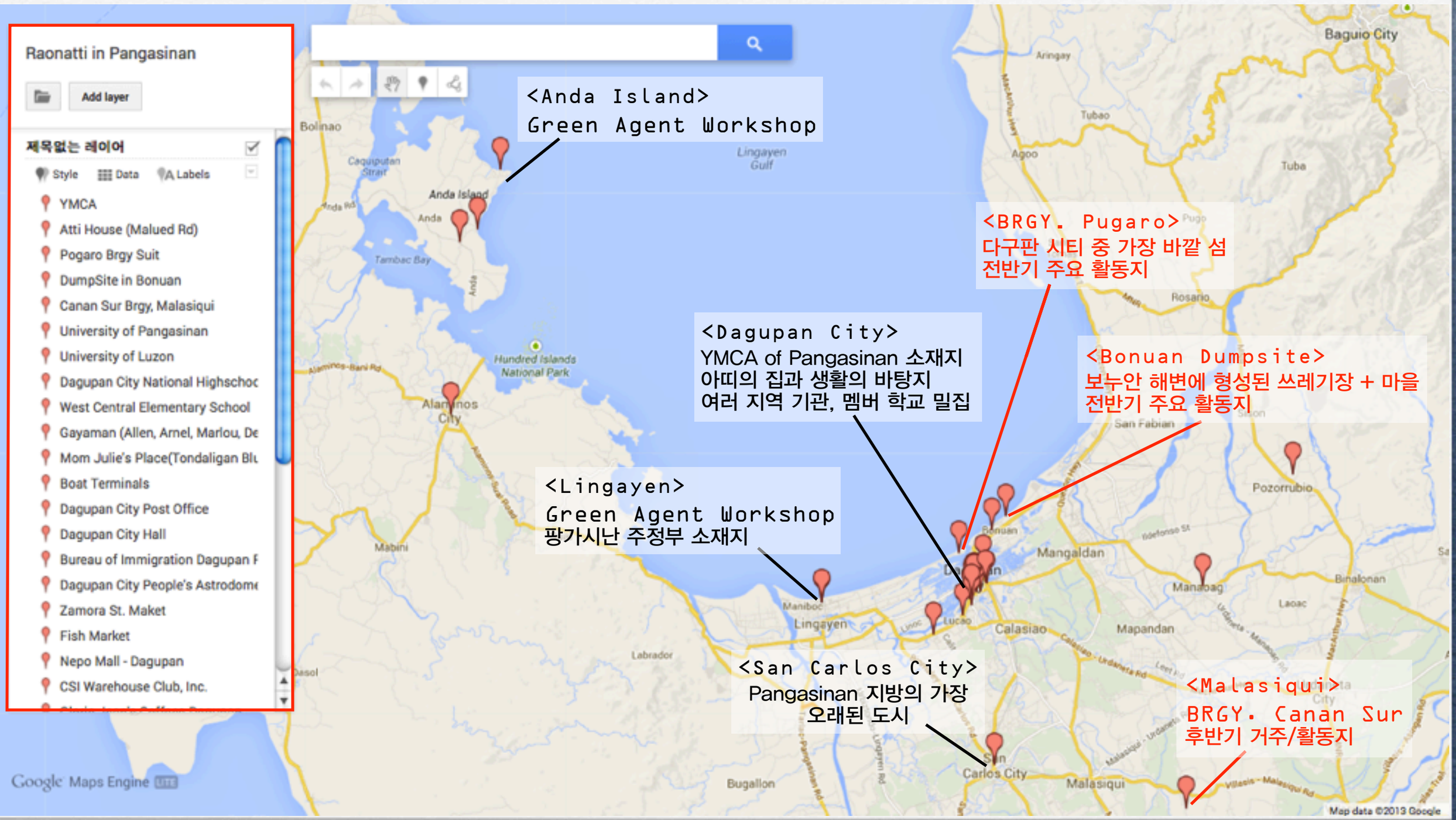
〈기타〉

- 언어수업 (따갈로그/영어)
- 홈스테이
- 가정방문
- 추석 맞이 한국요리 초대

9월 활동지도

2. 활동요약

'아띠가 한달 간 방문한 장소들'



호스트 기관 소개

YMCA of Pangasinan

1926년 설립. Philippines Luzon섬 Pangasinan 지방의 지리적 중심지이자 가장 큰 도시인 Dagupan City에 소재. 사무총장과 세 명의 스태프가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며 의사결정기구로 Board(이사회)가 있다. 각종 사업은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성격/대상에 따라 그에 적합한 멤버십 클럽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대만 Taichung YMCA, 일본 Saitama YMCA 등 타 해외 기관과도 활발한 교류 사업을 하고 있다.

팡가시난 Y의 얼굴들 :D

Jimmy
사무총장
Are you ok? Y의 아버지
"YMCA와 함께하는 삶"

Julie(mommy)
재정담당 스태프
분당 100타의 초고속 빈티지
아날로그 typist

Marvin(맙스)
프로그램 스태프
Y의 얼짱. 과쁀!
그래서일까 뭔지 모를 어색함...

Marlou(원빈)
자원봉사자
아띠들의 동반자
아띠와 한집, 24시간 생활

Richard(꾸~야)
수영장 직원
수영장 지킴이
천진난만 꽃 중년

Allen(알선생님)
자원봉사자
아이같은 미소, 후덕한 웃음소리
일본 통신사

Emerson(에멍)
멤버십 관리 스태프
에멍에멍도라에멍
인사는 쿨하게 패스! 시크한 도시남자

팡가시난 Y의 얼굴들 :D

DeenDeen(순걸이)
자원봉사자
보고있나 권순걸?!
아띠들의 마음을 잘 읽는 친구

Arnel(Mr.Park)
자원봉사자
Y의 기타리스트
해맑은 웃음의 소유자

Reynard(Anggo)
장학생
장난꾸러기 Y의 chef
and 말라키찬(커다란 배)

Jeremy(쭈꾸미)
장학생
감수성 풍부
비코슈~신사의 품격

Arneth(알네뜨)
자원봉사자
마자볼래? 더워 죽게싸! 너 미쵯소!
특기:한국말로 말싸움하기

Leo(이호)
자원봉사자
음악 천재
Aurora의 아들

Jeramae(Ami)
장학생
기상시간 A.M3:00
언니 같은 동생

Rolly(민규)
장학생
홀리폴리~♬
거절을 모르는 친구

이 밖에도 정말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답니다. 다음에 더 소개할게요 :)

팡가시난 Y 회원 그룹들

아띠와 일상적으로 함께 지내고 일하는 많은 친구들이 SKY, CYSO에 속해있다. 평상시에는 클럽 소속이 중요하게 구분 되지는 않는다.

SKY (Samahang Kabataan sa YMCA)

따갈로그어로 'YMCA의 청소년 그룹' 이라는 의미이다. 청년층이 주축이 되어 지역 청년들 혹은 해외봉사자들과 함께 5개의 영역(교육, 생계, 리더십, 보건, 환경) 내에서 각종 사업을 직접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그룹.

CYSO (College of Scholars Organization)

YMCA 장학생들 모임. YMCA는 매년 장학금 기부자/기부 단체를 대학생들과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장학생들은 매년 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선발된 이후에는 학교 성적과 YMCA에서의 활동내역을 합산하여 장학생으로서의 적합성을 평가받는다.

RTC (Red Triangle Club)

8-13세의 남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클럽 프로그램이며, 어린이들이 건강한 심신과 영혼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제공한다.

-각종 학업 경시대회
-체스대회
-환경교육
-스포츠클리닉 등

HI-Y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클럽 프로그램이며,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이상으로 활동영역과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한다.

-각종 학업 경시대회
-청소년 포럼
-리더십 트레이닝
-세계시민교육
-댄스교실 등

COLLEGE-Y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클럽 프로그램이며, 대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성장을 도모한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리더십 트레이닝
-사회문화 워크캠프 (YMCA Saitama Japan, YMCA Taichung Taiwan)
-라온아띠
-각종 경시대회 등

초등 / 고등 / 대학으로 나뉘어진 클럽을 대상으로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 대회가 진행된다. 9월에는 '4th Annual Spelling Bee', 'Green Agent Workshop'등이 개최되어 클럽 회원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했고, 다음 달 Academic Olympic이 준비되고 있다.

Facility

Canteen
(카페테리아 영업.
장학생, 봉사자들의 용돈을
벌 수 있는 작은 규모)

Y Pre-School

다목적실
(태권도 / 음악 연습실)

2층 임대공간

YMCA Office

수영장
(SPC-기부자의 이름을 땀)

1층 임대공간
(사리사리, 인쇄회사, 모토 카센터 등)

YMCA Hotel

팡가시난 지역

팡가시난 주(Pangasinan)
는 필리핀 루손 섬 지방인 일로코스 지방에 속한 주로,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이다. 주도는 링가옌이며 인구는 2,495,841명(2007년 기준), 면적은 5,414.0㎢이다. 남안에는 모래톱이 바다 쪽으로 멀리까지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는 남중국해와 인접해 있다. 주변에는 대규모의 습지대가 형성되어 양어지와 염전이 펼쳐졌다.

우리 나라와 다르게 이곳은 주마다 지역노래가 있으며 큰 행사가 있을 때 국가 다음 지역 노래를 부른다. 여기 팡가시난 지역노래 이름은 'Pangasinan Hym' 이다. 또 필리핀은 지역(주나 도시)마다 추수감사절이 다르다. 이 곳 팡가시난은 'Pangasinan Day'라 하여 4월 11일에 열리고 다구판시티(Dagupan City)의 추수감사절은 6월 22일이다.

▪팡가시난의 의미

'Pangasinan'이라는 이름을 팡가시난 언어(Pangasinan language)로 세 부분으로 나눠 해석 할 수 있다. 앞부분의 'Pang'은 "소금의 장소" 혹은 "소금결정의 장소"이며, 중간부분의 'asin'은 "소금"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an'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종합하면 Pangasinan은 "소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 이라는 뜻.

▪언어

팡가시난에서는 Pangasinan, Ilocano, Bolinao 등 매우 많은 지역 언어들이 있다. 사람들은 보통 따갈로그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제 2의 언어로 지역 언어와 영어를 사용한다. 하나 재미있는게 있다면 한국어의 '안돼'의 발음과 팡가시난어의 '안디(No)'와 발음, 뜻이 비슷하다.

Pangasinan 주 정부 청사 중앙에 커다랗게 조각되어 있는 주 마크. 바다, 방우스, 소금 등이 들어있다.

잠시 들렀던 지방 음악대회에서 Pangasinan Hym을 들었다. 지역 공식 행사에서 국가(Lupang Hinirang), 주가, 성가 순으로 합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구판 시티

다구판시티 [Dagupan City]
는 면적 37.23㎢, 인구 149,554명(2007년 기준)의 도시로 31개 바랑가이(barangay : 필리핀 최소의 지방 자치단위)를 가졌다. 다구판 시티 면적 중 35.98%는 농업지대, 22.88%는 번화가이다. 나머지 41.14%는 모두 물(바닷물, 강물)이다. 지대가 해발1m에 위치해 있어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지형을 가지고 있고 배수 시스템이 충분치 않아 홍수가 자주 발생한다. 바다에 닿기 전 커다란 강이 펼쳐져 있는데, 조수 간만 차에 따라 강을 통해 도시 안까지 물이 들어오기도 한다. 다구판 안에는 총 14개의 대학교가 있고, 25개의 초/고등학교가 있다(국립5, 사립20).

▪다구판의 의미
링가옌만안 최대의 상업도시 다구판 시티(Dagupan City)는 팡가시난 도시중 수세기에 걸쳐 지역 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이 모이는 곳" (Pandaragupan)"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지프니의 시내 노선
일반적으로 지프니는 다구판 시티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돌며 양 방향이 아닌 오직 한 방향으로만 이동 한다. 시내 번화가의 동쪽 끝인 네포 몰(Nepo Mall)에서 조금 더 가면 지프니의 반환점이 있고, 한 바퀴 크게 돌면 거리는 대략 8km이다. YMCA에서 시장까지는 대략 1km이고, 만약 지프니를 이용해 시장에 간다면 갈 때는 걸어서 가야하고 돌아올 때에는 지프니를 탈 수 있다.

▪Tondaligan Beach(or Bonuan Blue Beach)
다구판 시티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중 하나인 부노안 해변은 관광객들이 여유를 즐기기 좋은 장소이다. 수영도 할 수 있고 수상스키와 스쿠버다이빙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세계 2차 세계 대전시 맥아더 장군이 상륙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Y저녁 준비 보조, 아띠 아침 재료를 사러 하루 1~2회씩 Galvan St. Market에 간다. 주로 Y 소유의 트라이시클을 이용. Galvan St. 시장에서 좀 걸으면 강에 인접한 어시장이 있다. 이 거리의 시장들은 24시간 열려있고, 한국과 같은 '저녁 떨이' 문화가 거의 없는 듯 하다.

통달리간 해변은 지역의 휴양지이기도 하고, Y 스태프 Mommy Julie의 집이 있어 홈스테이 방문을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띠들에게는 'Dumpsite'의 바다다. 해변가 바로 한쪽 끝에 다구판 시티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Dumpsite가 있다.

덤프사이트 관리 공무원이었던 Teddy씨.
쓰레기가 쌓인 쪽은 아직 사진에 담지 않았다.

지역 학교

University of Pangasinan, PHINMA Education Network

팡가시난 지방의 대표적인 대학교인 UPANG-PEN. 팡가시난Y의 사무총장이신 Jimmy를 비롯한 몇 명 스태프의 모교이기도 하다. 학교의 주인이 몇 번 바뀐 끝에 현재 PHINMA라는 회사(부동산업, 버스사업 등)가 소유하고 있는 사립 대학교이다.

9월 12일 UPANG을 졸업한 몇 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학교를 방문했다. 아웃리치 담당 직원, Hospitality Management 학과의 4학년 학생들의 안내로 전 학과의 시설과 수업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그 후에는 안내해 준 사람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모든 건물을 직접 돌아보니 각 학과에 맞춘 매우 좋은 시설과 기자재, 수업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화학수업, 조리수업 등 다양한 실습 수업과 모델워킹 연습 등 학과 외 활동, 그리고 과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다양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다.

또 학과별로 Board Exam(자격시험의 일종)이 필요한 학과는 목표 합격률과 달성율의 그래프를 학과 앞에 게시하여 두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과가 목표 이상을 달성하고 있었다.

UPANG 호텔 외식 전공 조리 실습 수업

유니폼을 입고 학교의 모든 곳을 안내해준 Hospitality 학과, Out reach부 직원들과

University of Luzon

다구판에 소재한 사립 대학으로, 팡가시난 Y와 가장 활발한 교류가 있는 멤버 대학교이다. Board 이사진 중 두 분이 교수로 재임 중이며, 자원봉사자와 장학생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UL에 다니고 있다. 라온아띠는 9월 23일 교내 체육대회에 참석해 학교를 둘러 보았으며 10월달에는 세달에 한번씩 적십자와 연계해 진행하는 헌혈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UL의 Y식구들과

체육대회 - 간호학과 사람들과

덜레덜레 편하게 갔다가 갑자기 큰 무대에 오르고 환영받게 되는 것에 슬슬... 적응하게 된 아띠들.

지역 학교

Dagupan City National High School (DCNHS)

Y의 맞은편에 있는 Dagupan에서 가장 큰 공립 고등학교로 Y 사람들과 가족들이 많이 다니고 졸업했고 일하는 학교이다. 이전 Y직원 이셨으며 현재 Board Member인 Kuya June의 초대로 9월 12일에 학교에 방문했다.

교무동을 돌며 모든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렸고, Art Special Major 학생들이 준비한 특별 공연과 환영식이 있었다. 이 후 모든 교실을 방문하며 아이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 덕에 DCNHS 방문 후 길에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Y에 찾아오기도 한다. 학교에 있는 동안 Y 사람들의 가족들도 많이 마주칠 수 있었다.

DCNHS는 일반과정(Regular), 예술특별(Special Art), 과학특별(Special Science) 과정의 세가지 Course를 운영하며 총 130개 반을 가지고 있다. 입학 때 특별 시험을 통해 예술특별, 과학특별반을 선발한다. 과학특별반의 경우 수학교실, 과학교실 등 과목별 특별교실이 있다. 또 초등학교 4학년 까지는 선생님이 교실을 옮겨 다니지만 그 이후의 학년은 학생들이 과목별로 학생들이 옮겨 다닌다고 한다.

West Central 1 Elementary School (WC1ES)

오래 전에 팡가시난 YMCA와 가장 먼저 멤버십을 이룬 학교로 Y의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이다. 이곳 역시 일반반 이외에 우등반 / 특수아동반의 두가지 특별반(selected student class)을 운영한다.

또 학교 공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필리핀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킨 더 글라스 맥아더 미군 장교가 지내던 곳이었다고 한다. 최근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나 9개의 교실을 포함한 하나의 교실동이 전소된 모습도 보았다. 곧 3층으로 다시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교장 선생님과 학교를 둘러보고 특별반 교실을 방문했다. 선생님들 께서 지난 여름에 Taichung YMCA, Taiwan Work Camper들이 방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을 이야기 하시며 라온아띠도 학생들과 여러가지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셨다.

사무총장 Kuya Jimmy의 딸 까밀과 친구:)

사진은 모두 DCNHS. 정말 많은 아이들이 환영해 주었다. 음악, 춤 등 예술특별반의 공연은 대단했다.

지역 학교

Anda National High School (ANHS)

Green Agent Workshop의 장소로 방문했던 Anda 섬의 공립 고등학교이다. 바로 옆에는 공립 초등학교가 함께 있다. Anda 섬의 주요 수입원이 농업이기에 농업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 교정 / 우리를 반가워 하던 아이들 / Green Agent WS 답사 미팅

'BIM : Beneficial Indigenous Microorganism' 을 연구하시는 Mr. Ramon M. Zafra씨. 학교 한켠에서 자투리 나무로 숯을 만들던 시설을 이용해 각종 폐지로 숯을 만드는 것을 연구하신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 부서에서 지원한 아프리카산 지렁이로 만드는 비료, 망고와 애벌레를 이용해 만드는 비료, 자투리 나무들을 삭혀 만드는 비료 등 직접 연구하고 만들어낸 다양한 자원 재활용 유기물들을 보여주셨다. 학생들은 이 장소를 '실험실' 로 부르며 농업 과목을 통해 활발히 드나든다. Zafra 선생님께서도 BIM을 주제로 Green Agent Workshop에서도 하나의 Station을 운영하셨다.

4.주요활동

첫 만남

인천 공항을 떠나면서부터 한국사람이라곤 우리 다섯 뿐이라는 긴장도 잠시, 지난 한 달간 많은 사람을 만났고, 친해질 수 있었다

1. 환영 !
팡가시난 YMCA에 온 첫날, 우리는 많은 자원봉사자들, 장학생들과 이사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큰 플래카드와 노래로 우리를 환영해준 자원봉사자들, 맛난 저녁식사와 꿀같은 환영사로 우릴 맞아준 이사진들 ! 팡가시난 YMCA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2. 라온아띠 하우스
우리의 보금자리인 RAONATTI HOUSE는 우리만의 집이 아니다. Marlou라는 친구가 우리 다섯과 한 집에서 지내며 우리 생활 전반에서 많은 것을 챙겨주었고, 적응을 도와주었다. Marlou뿐만 아니라 YMCA 자원봉사자들 중 일부도 숙소로 애용(?)하며, 자연스레 한 방에서 자거나 아침식사도 같이 한다. 공식적 활동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을 함께 하며 자원봉사자들이랑 별 어려움 없이 친해질 수 있었다.

1. 마닐라 공항에서 우리를 반겨주신 필리핀 Y연맹의 Ate Marcel! 팡가시난으로 떠날 때 까지 따듯하게 돌보아 주셨다. 그녀 덕에 낯선 필리핀에 포근히 첫 발걸음을 들일 수 있었다.

2. 필리핀 Y 연맹의 사무총장님 (Kuya Paps)와 함께 팡가시난 Y에 도착하자마자 잊지못할 여러가지 이벤트로 우리를 환영해 준 사람들. 그날 밤 Y에 드나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모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다.:)

3. 아띠 하우스 한쪽 벽에 커다랗게 붙어있던 환영 메세지. 지금도 붙여둔 채 지낸다. 환영식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집으로 와 입주를 축하하며 집을 둘러보던 시간이 새록새록 하다.

4. 아띠 하우스는 사랑방이다. 주말에는 종종 사람들이 와서 함께 요리를 해먹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애써 손빨래를 하는 아띠들을 보며 놀리기도 하고.... 식구가 되어가고 있다.

4.주요활동

첫 만남

3. 활동하며 만난 사람들

9월 한달간은 exposure 기간, 즉 이 곳의 많은 활동, 환경, 사람들에 노출되며 적응하는 기간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YMCA 사무실, 방문차 간 곳, 프로그램을 진행한 곳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방문차 간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큰 환영을 받기도 했고, 활동하며 자연스레 알게 된 친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친해진 그룹이라면 매일같이 YMCA에서 만나는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장학생들일 것이다. 함께 활동하고 고민하며 가끔은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들과 추억을 쌓아나가고 싶다.

4.주요활동

ANDA green agent Workshop

'아띠가 준비한 첫번째 프로그램 / 필리핀의 쓰레기 문제를 느끼고 따라가본 시간'

팡가시난 YMCA가 주최한 2013 Green Agent Workshop 운영에 참여했다. 이 워크샵은 Asia Pacific Alliance of YMCA의 환경 프로젝트인 Green Challenge 2013 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청소년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워 주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행동하도록 격려하는 다양한 Activity와 강연, 견학이 진행되었다.

아띠들은 워크샵 중 하나의 Station을 맡아 9월 중반부터 많은 시간을 워크샵 준비에 할애했다. 아띠들이 선정한 주제는 'Waste Segregation'. 필리핀에 도착한 후 가장 크게 와 닿았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그리고 아띠 주요활동지인 Dumpsite를 방문한 후 얻은 고민, 또 아띠가 생활하는 다구판 시티의 쓰레기로 인한 도시 홍수문제가 버무려진 것이었다.

이 곳의 다양한 쓰레기 문제와 해법을 더 조사한 뒤 PPT / 게임 / 영상의 세 단계로 구성된 흥미진진한 Workshop을 준비하였다! :) 아띠의 관심과 질문에서 출발해 지역에 대해 더 깊이 알게되었던 준비 과정도 재미있었지만, 무엇보다 진지하게 또 유쾌하게 아띠들이 준비한 Station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만날 때 가장 즐거웠다. 참여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초대를 받아 팡가시난 각지의 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다.

- **주최 : YMCA of Pangasinan, Inc.**
- **주제 : Youth Empowerment through Change Agents**
- **날짜 : 28–29 September 2013**
- **장소 : Anda Island, Pangasinan**
- **참가자 : 팡가시난 지역 초–고교생, 교사**
- **주요 내용 : 5가지 Green Activities**
  환경 주제 강연 (350PPM)
  망그로브 숲 Clean Drive
  팡가시난 지방정부 견학
  안다 섬 콘돌해변 방문 등

그 밖에도 워크샵을 통해 팡가시난의 가장 큰 섬인 Anda, 팡가시난 지방정부가 있는 Lingayen을 돌아보았고, 일본 사이타마 YMCA가 Anda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을 둘러보았다.

4.주요활동

ANDA Green Agent Workshop

'Station3 : Waste Segregation'

Improper Waste Management 문제를 피부로 느낌

쓰레기 분리수거로 주제를 좁히고, Junk Shop에 방문하는 등 지역의 쓰레기 문제와 가까운 해법을 조사함

간혹 분리수거 통이 있지만 제대로 분리되지 않음

문제를 알리는 PPT / ‘Waste Segregation’을 재밌게 익히는 게임 / 행동을 촉구하는 동영상을 준비함!

4.주요활동

ANDA Green Agent Workshop

'Station3 : Waste Segregation'

필리핀의 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PT

두더지 게임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낸 후

종류에 맞게 분류해 던지는 게임

던져서 바구니에 넣은 쓰레기를

Junk Shop에 판다. 팔 수 없는 것도 있다. 판 금액만큼 점수획득!

저녁, 그룹 별 발표 시간 . .

< Green Agent Workshop Parallels Workshop >

- Station 1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Station 2 : Global Alternative Tour Network
- Station 3 : **Waste Segregation**
- Station 4 : Disaster Preparedness
- Station 5 : Beneficial Indigenous Microorganism

많은 그룹이 쓰레기 문제를 다룸

WS 종료 후 피드백 .

4.주요활동

라온아띠 프로젝트 사이트 방문/조사

(1) Baranggay Pugaro, Dagupan City

전반기 주요 활동지 중 한 곳. Dagupan city의 가장 바깥 쪽 섬이다. Port에서 배로 15분(3.5km) 떨어져 있다. Pugaro 섬 안쪽 까지는 강이고 Pugaro를 넘으면 바다가 있다. 하나의 초-고등 통합 학교가 있다. 마을의 주요 수입원은 어업이나 계절에 따라 그날 잡은 물고기를 그날 먹는 자급 자족식 어업만이 가능 할 때도 있다. 때문에 마을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생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모래가 많은 토양과 해풍의 영향으로 야채, 과일 등을 재배 할 수 없고 소득도 높지 않아 영양 불균형이 많다고 한다. 시 정부 그리고 팡가시난 YMCA, 일본의 NISVA(Nippon Skilled Volunteers Association)등 민간 기관의 지원으로 여러가지 복지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라온아띠는 10월부터 이 지역에서 아동 교육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Y,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 생계수단을 연구 할 예정이다.

A. Puraro Sewer Association (푸가로 재봉사 협회)

- 마을 여성들의 대안 소득 창출을 위해 일본 NGO인 NISVA(Nippon Skilled Volunteers Association)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마을 바느질 기업이다. NISVA로부터 재봉 기술과 디자인을 배우고, 기계와 원단을 지속적으로 지원 받아 옷, 가방, 악세사리 등을 만들어 수익을 낸다. 푸가로에서 시도되었던 다른 대안 소득 사업들에 비해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고, 마을 안에서 수요가 충족되어 밖으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푸가로로 가는 방법은 강을 건너거나 육로를 통해 가는 두 방법이 있다. 육로 길은 22km이나, 뱃길은 3.5km밖에 되지 않는다. 뱃길을 통해 팬탈강(Pantal R.)을 포함한 5개의 강을 지나간다. (강은 하나지만 지역에 따라 강 이름이 나뉘는 것.)

4.주요활동

라온아띠 프로젝트 사이트 방문/조사

B. Water Purifying System

– 짓고 관리하는 것이 쉬운 구조의 물 정화 시스템으로 2011년에 완공되었다.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 올려, 염소 소독 후 건물 옥상에 13ton의 물탱크에 저장하고, 20L 당 5 Piso (외부에서 살 경우 25–30 Piso)에 물 구매를 가능케 한다. 마을 사람들이 건설 전 과정에 참여하여 System이 마을에 자립할 수 있었고, 현재 마을이 1차 관리를 하고, 팡가시난 YMCA와 Dagupan Water District가 분기별 수질 검사 등 2차 관리를 하고 있다. 물은 식수용이며 수익은 유지비로 모두 사용된다. 일본 기관에서 물을 담아갈 수 있는 케이스를 100개 지원하여 주민들이 대여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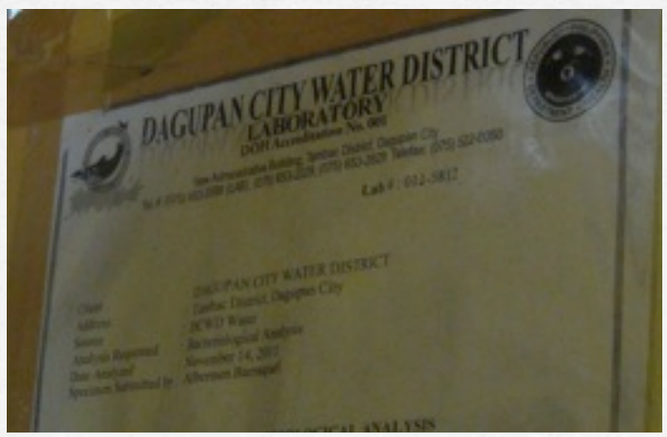
– Pugaro는 City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섬으로 송수관을 설치할 수 없는 환경, 지하수를 사용해오던 곳이었다. 지하수가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 시설이 없기에 땅에 배설한 분뇨를 통해 홍수 시 물이 또 다시 오염 되었다. 주민들은 복통, 피부질환 등에 시달리며 이미 물이 문제인 것을 알았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적절한 식수를 구매하기 보다는 오염된 물을 계속 사용했다.

– Dagupan 시장이 NISVA를 초청하여, 시의 문제를 조사하던 중. 여러 케이스 중 가장 열악했던 바랑가이 Pugaro의 식수 문제에 접근, NISVA의 기술과 기술 인력, 팡가시난 YMCA의 Community Service, Rotary Club의 자금이 협력하여 Water Purifying System을 건설했다. YMCA와 Pugaro는 1990년 부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시작으로 다시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식수용 염소 소독 시스템

염소 농도 검사 키트

정수 시설 사업의 Director인 Y의 자원봉사자 Allen



수질 검사 표

4.주요활동

라온아띠 프로젝트 사이트 방문/조사

C. Day care center

– 3,4세 아동 63명을 7:30–10:30과 10:30–13:30 두 그룹으로 나누어 언어, 신체 활동, 음악 수업 등을 진행한다. 63명의 아동을 선생님 한 분이 담당하여 아이들을 적절하게 돌보기 쉽지 않은 상태로 라온아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실내 공간이 좁은 것도 약간의 어려움이다.

D. Feeding Program

– 정부에서 후원하는 Day care center 63명의 아동과 지역 의원이 후원하는 자체 기준 선발의 아동 100명, 총 163명에게 Pugaro Mother's Club이 주축이 되어 점심 Feed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의원 후원의 Feeding의 경우 가구 조사 후 저영양 상태의 아동을 선발하였다. 하지만 두 프로그램 모두 6개월 단발 사업으로 현재 현재 정부 후원 Feeding은 3개월, 의원 개인 후원 Feeding은 2개월 째 진행 중이다.

E. Health Center

– 공중 보건소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 허가가 없는 간호사가 상주하며 간단한 처치나 접종 등 예방 활동을 한다. Branggay내 유일한 의료 시설이기에 조금이라도 일상적이지 않은 질병이 있을 경우 도시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야간에는 Health Center의 간호원이 처치하기도 한다. 일주일에 한번 정부에서 간단하고 기본적인 약품들을 수요에 맞게 지급한다. (지역 전역에 보급되는 수준.)

4.주요활동

라온아띠 프로젝트 사이트 방문/조사

(2) Bonuan Dumpsite

전반기 주요 활동지 중 한 곳이다. Y가 단기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했었던, 거의 새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곳이다. 팡가시난 YMCA가 있는 Dagupan 시내에서 지프니로 30분 떨어진 거리의 Bonuan 해변에 형성되어 있는 거대 쓰레기 하치장이다.

Dagupan city에 하나 밖에 없는 Dump Site로 Dagupan city에서 버린 쓰레기는 모두 이곳으로 간다. 유명한 휴양 해변인 Bonuan 해안에 바로 인접해 있어 놀라웠고, 바다 근처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천만해 보였다. 어떻게 바다 근처에 쓰레기 하치장이 생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점점 쌓여서 생긴 것이다. Dump Site는 쓰레기를 묻는 매립지와는 다르다.

거대한 산처럼 쌓인 쓰레기산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의 모든 주민은 쓰레기 들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내 Junk Shop에 되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Waste Picker이다.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Dump Site 안에는 두개로 나뉜 부락이 있는데 오래된 곳은 3대, 이 후 형성된 곳은 2대 째 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한다. 의료 등 기초 생활 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지난 시 정부에서 Dump Site 초입에 환경 정화 사업으로써 생태공원을 조성하였고, 주민들의 대안 생계를 위해 쓰레기를 이용한 비료 만들기 사업, 주민 조합 구성 등을 시도 하였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 모든 진행이 멈추어 있는 상태이다.

라온아띠는 성인의 경우 대안 소득의 기회를 돕기 위해서 언어(영어, 따갈로그 문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이 곳의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이 지역에 찾아가 아이들과 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 할 것이다.

4.주요활동

라온아띠 프로젝트 사이트 방문/조사

(3) Baranggay Canan Sur, Malasiqui

12월 초부터 귀국까지 두달 간 거주하고 활동 할 곳으로 Dagupan City에서 동남쪽, 차로 1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농촌 지역이다. 4-5개의 집이 부락을 이루어 사는 Compound들로 이루어진 촌락으로 주로 친척들끼리 모여 살며, Y의 Staff인 Kuya Richard의 고향이다. 그의 집 주변에도 모두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라온아띠는 YMCA가 오래 전에 짓고 약간의 Material을 지원했던 Day Care Center(현재 다른 건물로 이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Mother's Club을 활발히 조직하는 것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 Brgy. Canan Sur 의 대안 소득을 제시하기 위해 Pugaro와 일본 기관의 사례와 같이 안양 YMCA 와의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Day Care Center 내부와

외부. 방문했던 날은 수업이 없었다.

5. 기타 활동

필리핀 YMCA 연맹과의 만남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필리핀 Y 연맹의 Ate Marcel이 마중나와 주셨고 필리핀 YMCA 연맹 사무실을 들러 Kuya Paps, Pablito 사무총장님 만나 뵈었다. 다음 날 저녁 팡가시난에 도착할 때 까지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안내로 필리핀의 YMCA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마닐라 투어를 했고, Bishop Tex로부터 외국에서의 삶에 대한 강의와 조언을 들었다.

언어수업
필리핀 현지어인 따갈로그어와 영어 수업이 있었다. 따갈로그어 수업 때는 자원봉사자 친구들이 1:1로 옆에 앉아서 보조 선생님이 되어 주고, 물건 사는 것 등 생활에 필요한 언어를 상황극을 통해 배웠다. 영어 수업은 영어 교육을 전공한 Program Secretary Staff Marvin이 진행하였고 영어의 기본 문장구조에 대해서 배우며 각자 문장을 만들고 잘못 되었다면 올바르게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아띠들의 영어 구사 수준이 모두 달라서 앞으로 영어는 각자 공부하는 것으로, 또 활동지의 어린이들이 영어를 쓸 수 없고 따갈로그나 지방어인 팡가시난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화,목(따갈로그), 수(빵가시난), 토(한국어)로 정하여 서로의 언어를 배울 예정이다.

Preschool 수영 수업 보조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30분 Y의 SPC 수영장에서 아이들에게 놀이식 수영 수업을 진행한다. 우리는 총 2번(13일, 20일) 참여하였고 현지에서 처음으로 아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기도 했다. 수영 수업이 끝나면 자원봉사자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수영을 배우기도 한다.

추석맞이 한국음식 대접
RaonAtti House에 Y식구들을 초대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음식을 대접하고, 한국 전통 옷을 소개하며 어른들께 절도 드리고, 춤과 노래를 즐기며 놀았다.

5. 기타 활동

홈스테이
다양한 필리핀 가정의 생활 모습을 체험하고 Y 사람들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주말을 이용해 아띠 한 명 한 명씩 Staff 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첫번 째 홈스테이는 Aurora, MinAh가 재정 Staff Mommy Julie댁에, Alex는 아띠 담당 자원봉사자 Marlou의 집에, Jun은 Membership Staff Emer의 집에, 그리고 Dainey는 Preschool 선생님 Cherry의 집에서 주말을 보냈다. Y 사람들의 가족과 역사를 만났고 정말 천차만별의 가정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다.

4th Annual Spelling Bee
RTC와 HI-Y Club을 대상으로 하는 연중 행사인 스펠링 비의 진행을 도왔다. 영어 스펠링을 맞추는 퀴즈 대회로 각 학교에서 대표선수 세 명이 모여 학교별로 경쟁을 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고, Y가 큰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지도 볼 수 있었다.

Bible Sharing
매주 월요일마다 스텝, 장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경 나눔을 하는 시간. 그날의 정해진 성경의 3~4구절을 영어, 따갈로그어, 팡가시난어로 읽은 후 한 사람씩 돌아가며 구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다섯명 중 네명의 아띠가 무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개인의 경험담을 위주로 이야기를 나눈다.

Reflection
매주 금요일 아띠들이 일주일마다 생활한 내용 및 느낀 점들을 정리하여 Y 스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 Reflection을 통해 서로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Aurora (보경)

'필리핀의 장례문화'

전화를 받은 꾸야 지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팡가시난 YMCA의 초대 이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 모두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순간 먼저 걱정이 되었던 것은 옷과 신발이었다. 한국에서는 보통 검정색의 정장과 신발을 신고 장례식에 참석 하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 있는 옷이라곤 단복과 청바지, 트레이닝 바지, 신발은 운동화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꾸야 지미에게 장례식 복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쭤보았더니 필리핀에서는 장례식에 검은색 대신 흰색 계열을 주로 입고 우리 아띠들에게는 흰색 단복과 긴 바지를 입고가면 될 거 같다고 말씀해주셨다. 신발 또한 슬리퍼만 아니면 뭐든지 괜찮고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복장에 더 자유롭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 단, 빨간색은 피해야하는데 빨간색은 경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대통령
Aurora

장례식을 가기 전 YMCA에 라온아띠를 포함하여 YMCA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크게 웃기도 하였다. 그러다 어느 한 사람이 기타를 꺼냈고 가사와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 가사는 따갈로그어로 되어있었고 옆에 있던 친구가 같이 부르자고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따라 불렀는데 노래가 끝나고 친구가 말해 준 가사의 의미를 듣고 알았다. 이 노래와 글들은 고인을 기리는 추모곡과 추모글이었고 장례식에서 할 추모식을 연습 한 것이었다. 짧은 추모식 연습을 끝내고 YMCA에서 준비한 저녁식사를 먹고 장례식장으로 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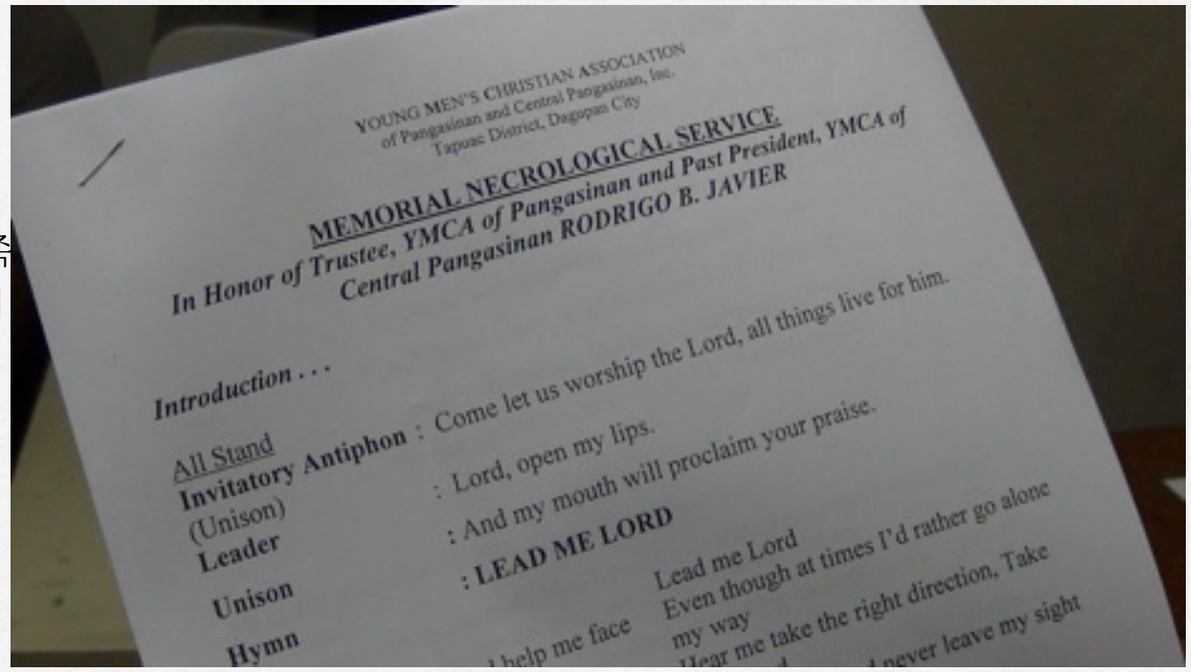
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걸려 장례식장에 도착하였다. 장례식장 안에서 고인의 가족들은 기도를 하고 계셨고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다 기도가 끝난 후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앞에는 고인의 관이 있었고 우리는 자리에 앉아 기도를 시작으로 고인을 위한 추모식을 진행하였다. 준비해 간 추모곡과 추모글을 읽은 후 고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따갈로그어로 시작한 딸의 말이었다. 따갈로그어여서 내용을 모두 알아 듣진 못하였지만 말하고 있는 딸의 표정을 보며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중간 중간 '파파' 라는 말이 들렸다. 그 때 작년 이맘때쯤 돌아가신 친구의 아버님이 떠올랐고 그 때의 슬픔이 올라와 딸이 울먹일 때 나도 모르게 같이 울어버렸다.

Aurora (보경)

'필리핀의 장례문화'

필리핀에서는 유리로 만들어진 관을 통해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에게 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장례식장에 가기 전 이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엔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 번도 돌아가신 누군가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막연한 두려움이 일었지만 추모식이 끝난 후엔 두려움보다는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고인을 뵈러 관 앞으로 갔다. 유리관 안엔 고인이 필리핀 전통의상인 흰색 Balong을 곱게 입고 웃고 계셨다. 웃고 계신 얼굴을 뵈니 왠지 모르게 내 마음 또한 편안하였고 좋은 곳에 가시길 기도를 드리고 나왔다.

나오는 길에 방명록이 있어 나의 이름과 간단한 인사말을 남기는데 종이가 올록볼록 튀어 나와 있어 들쳐보니 약간의 돈들이 들어있었다. 그러고 보니 여긴 장례식장 앞에 부조금을 넣는 통이 따로 없었다. 같이 간 친구에게 물어보니 부조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원하는 사람은 편지 봉투 안에 돈을 함께 넣거나 방명록 안에 껴둔다고 한다. 그리고 방명록이 있는 이유는 장례식을 모두 치른 후 방명록에 적힌 이름과 주소로 감사 편지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들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타는데 갑자기 연이가 내리더니 장례식장 안에 무엇을 두고 오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연이가 장례식장안에서 음식을 먹다 음식을 남기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말에 미처 먹지 못한 빵을 가져왔는데 필리핀에서는 장례식장 안에 있는 물건 혹은 음식을 가져오면 혼령이 따라오기 때문에 절대 절대 가져와서는 안 된 다고해서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가서 내려놓고 온 것이었다.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of Pangasinan and Central Pangasinan, Inc.
Tapuac District, Dagupan City

MEMORIAL NECROLOGICAL SERVICE
In Honor of Trustee, YMCA of Pangasinan and Past President, YMCA of Central Pangasinan RODRIGO B. JAVIER

Introduction . . .

All Stand
Invitatory Antiphon : Come let us worship the Lord, all things live for him.
(Unison)
Leader : Lord, open my lips.
: And my mouth will proclaim your praise.
Unison : **LEAD ME LORD**
Hymn Lead me Lord
Even though at times I'd rather go alone
my way
Hear me take the right direction, Take
help me face never leave my sight

오늘 장례식에서 추모곡과 추모글을 같이 부르고 읽고 고인에 대해 유족들의 말을 듣고 나누고, 그렇다고 너무 엄숙하기만 한 건 아닌, 때론 웃으면서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고 온전히 잘 보내고자 하는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들을 알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가족들... 그리고 각자 각 마을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우리 아띠 친구들 이야기까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추억하였다.

-끝

Alex(연) '월기'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 동안 필리핀에서 느낀 낯섦과 새로움들 중 굵직했던 것들 위주로 한 달을 요약해보려 한다.

HIYA

예전부터 햇살 좋은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거침없는 성격에 열정, 여유가 넘치고 사고도 자유분방할 거라 예상하곤 했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캘리포니아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던 스테레오타입을 풍부한 일조량의 역할이라 일반화했던 듯한데, 연일 쨍한 햇살이 만개하는 이 곳에서 나를 갸우뚱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 특유의 '부끄러움' 이었다.

필리핀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 중 대표적인 것으로 'hiya'가 있다. 부끄러움, 체면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필리핀에서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 자연히 필리핀 사람들은 남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신경을 쓴다. 내가 관찰한 이곳 사람들의 태도와 생활 곳곳에서도 'hiya'가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곳에 왔을 때 난 손님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호의가 굉장히 유난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에서 온 우리 뿐 아니라 그 어떤 손님이라도,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수고든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손님에 대한 극진한 대접은 필리핀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문화이다). 게다가 손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기 힘들었던 반면 손님의 호의를 기어코 사양하는 모습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설사 수중에 금전이 약간 모자라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일을 망칠지언정 절대 라온아띠 친구들에게서는 돈을 빌리지 않으려는 그 고집. 그저 사양이라 하기엔 무척이나 유난하다고 느꼈다. 이런 모습들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필리핀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 자원봉사자 친구가 말해주었다.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hiya'가 드러난다. 더운 나라 사람들답지 않게 소매와 바지 길이가 꽤 긴 것을 볼 수 있다. 한 봉사자 말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이제야 슬슬 노출이 자유로워지는 단계라고 한다(50년 전만 해도 여자에게 맨다리는 남편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밖에 동성끼리 있을 때도 신체노출을 가급적 삼가는 모습, 약간의 피해를 끼쳤을 때조차 거푸거푸 사과를 하는 모습 등 'hiya' 란 정서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와 소속감을 중시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사고방식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동체 문화를 왜 흔히 동양권 문화로 분류하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되기도 했다. 라온아띠 멤버들이 가져야 한다는 '아시아적 감수성' 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Alex(연) '월기'

게이

전 세계적인 자유화 물결 속에서도 한국 남자들이 쉬이 건들지 못한 성의 성역이 여기서는 속절없이 무너진다. 남자라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믿는 암묵적 전제, 예를 들어 연애 파트너는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는 필요조건, 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종의 남성적 이미지가 그것이다(길거리에서는 여장을 하고 활보하는 남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그들은 흔히 게이로 간주된다).

필리핀에 온 이래로 남성 동성애자를 몇 만날 수 있었다. YMCA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은 공개적인 게이였으며, 스스로가 게이라 말하고 다니지는 않으나 많은 이들이 게이일 거라 짐작하는 다른 봉사자들도 있었다. 언급한 공개적 게이인 YMCA 자원봉사자는 지금까지 만나온 남자친구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연애사를 읊어 내려가기도 했고, 3년 뒤쯤 해외에서 남자친구와 결혼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필리핀에서는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게이라는 하나의 군상을 만나는 것은 퍽 즐거운 일이었다. 한 발 떨어져 즐겁게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게이들이 내게 유난한 관심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 때부턴 맘 편히 게이들을 관찰의 대상이라고만 볼 수가 없었다. 내 흰 피부가 매력적이라 말하며 연신 내게 말을 걸던 한 친구(이 친구는 버스에서 낮잠 자는 내 모습을 몰래 찍어 간직하기도 했다), 계속 문자를 보내왔으나 내가 답장을 하지 않아 토라진 자원봉사자 등 내게 동성적으로(!) 매력을 느꼈다 짐작되는 남자들이 몇 있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으나, 곰곰 생각하다보니 어딘가 짚이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 여자이고 싶어 했던 어린 시절, 항상 '보이시' 한 여자에게 더 끌리던 이성 취향 등 내 역사엔 전형적인 남자들의 성장과정과 다른 페이지가 분명 존재했다. 혹시 그들은 내게서 보통 남자들과 다른 감성 코드를 감지한 것이 아니었을까(전형적인 남성들과 다르다는 것이 동성애에서의 매력 포인트로 직결된다는 것은 비약일지도 모르지만.)? 여태 살면서 남자에게 애틋한 감정이나 에로스를 품어본 적은 없으나 혹시 그것도 내가 한국에서 주입받은 닫힌 성 역할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만약 내가 필리핀에서 자랐다면 게이가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한편 여성 동성애자는 왜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Alex(연) '월기'

영어

Team Doctor°|며 Translator,
비상용 코코넛을 가진 자
Alex

필리핀으로 파견된 것의 가장 큰 이점은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말이 통한다는 것이겠다. 어딜 가든 영어만 하면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다. YMCA 사무총장님, 스태프들, 자원봉사자들, 이사진, 방문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까지 모두들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를 구사한다. 영어가 국가에 의해 지정된 공용어인 데다 영어로 된 TV광고, 영어로 된 책, 영어로 된 표지판, 영어로 된 신문 등등 일상에서 접하는 매체 중 상당수가 영어로 되어 있다. 따로 현지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실로 편하다. 그러나 이 나라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것이 씁쓸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YMCA의 멤버 학교 중 하나인 University of Luzon에 갔을 때, 층계 복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Speak English and conquer the world." 300년 넘게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도 자기 언어를 지켜온 필리핀에서, 영어가 이렇게 정복 야욕을 실현시키는 도구처럼 공공연하게 표현되는 것에 고개가 갸우뚱했다. 평소에 우리나라의 유난한 언어 민족주의에는 반기를 들었으면서도, 이 대학에서 목격한 패권주의적 언어관에는 도무지 정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필리핀 내에서도 영어 실력은 신분을 구분하는 척도로까지 쓰이는 경우가 있다. 웬만한 고등교육 서적이 영어로 되어 있어 개인의 교육 수준과 영어 실력이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필리핀에서는 영어 잘하는 필리피노가 영어 못하는 필리피노를 비웃고 하대하는 것이 상당히 흔한 일이라 한다. 공용어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라면 참으로 꺼림칙하다.

개인적으로 평소에 관심 가지고 배우던 영어를 써먹을 수 있게 된 기회가 생겨 기쁘면서도,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에서 영어 실력이 하나의 권력처럼 작동하는 모습을 접하는 것은 어딘지 씁쓸했다.

낯선 문화권에 살면서 그 동안 쌓아온 가치관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경험은 참 좋은 것이다. 아직도 매일이 새롭다. 그 동안 느낀 차이와 낯섦을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쯤 내 자신이 더 성장해 있길 기대해 본다!

끝.

Dainey(다희)

'아띠의 필리핀 식생활'

BEST3

1. misua(미수와)
중국식 당면과 간, 폐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다. 한 마디로 한국의 '사골곰탕' 맛이 났다.
김치 한 조각만 더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2. chicken adobo(치킨 아도보)
'아도보' 는 필리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다. 주재료가 무엇 이느냐에 따라 adobo pork, adobo stringbean, adobo duck, adobo fish 등이 있지만, 고기 좋아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도보는 치킨 아도보! :)

3. banana que(바나나 큐)
바나나큐는 바나나를 옥수수 피로 덮어 기름에 튀긴 것이다. 필리핀에서 간식처럼 자주 먹을 수 있다.
한국에서 바나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필리핀 바나나큐는 정말 맛있다.

*** mina's best food : pigar pigar, mami noodle**
*** alex, aurora's best food : squash(단 호박전 같이 생긴 것)**

Misua

Adobo

Banana Que

Pigar Pigar

Mami Noodle

Dainey(다희) '아띠의 필리핀 식생활'

WORST3

1. balut(발룻)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발룻. 하지만 그 순간은 정말 갑작스러게 다가왔다. 때는 저녁식사 후 Y 건물 앞. 모든 현지 스탭들이 보는 앞에서 발룻 신고식을 치뤘다. 물론 깃털을 먹었다는 단원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괜찮아서 눈 질끈 감고 한 번에 삼켰다! 맛은 그냥 삶은 계란과 비슷한 맛이었지만, 거의 살아있는 새끼 오리를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나의 WORST1이는 발룻이다.

2. salmon sinigang(연어 시니강)
필리핀 도착 첫날 먹은 연어 시니강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모두들 한 수저씩 국물을 맛보고는 아무도 시니강 근처에도 수저를 가져가지 않았다.(연이 빼고) 아주 신 맛과 거의 살아있는 연어를 넣은 것 같은 비주얼로 나의 WORST 2위!

3. ampalaya(암팔라야)
암팔라야는 현지 사람들도 bitter ampalaya라고 부를 정도로 쓴 맛이 아주 강한 채소이다. 암팔라야가 main menu로 나온 날, 오로라와 나는 맨 밥만 먹었고 민아는 자기도 모르게 망고주스에 밥을 먹었다는 후문:)

*** alex's worst food : ube icecream**
- 모든 단원들이 치를 떨었던 연어 시니강도 먹을만 하다며 먹던 연이도 우베 아이스크림은 먹지 못했다. 보라색으로 처음에는 포도 맛을 기대하며 먹었지만 그 맛은 마치 온갖 색상의 크레파스를 섞어 놓은 듯한 맛이었다. 나중에는 이것이 고구마와 비슷한 종류인 '우베'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Balut, Salmon Sinigang, Ampalaya
그리고 Ube Icecream!

Dainey(다희)

‘아띠의 필리핀 식생활’

아띠의 식생활

– 길거리 군것질
피노이 스크럼블, 치킨, 부코주스…

– 좋아하지만 자주 못 가는 곳
졸리비(스파게티, 햄버거, 커피)

– 좋아하고 자주 가는 곳
‘세븐 일레븐’ : 한국컵라면… 신라면 등 / 소프트콘

Jolibee!
식사 전 / 후 / 환한웃음:D

Dainey(다희)

‘Dainey의 mention’

나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필리핀의 식생활에 관심이 많다.
한 마디로 필리핀 음식은 'too salty or too sweet'이다! 필리핀에 와서 초기에는 이러한 필리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내가 저절로 살이 빠질 것이라고 크게 오산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한국에서 가져온 옷이 점점 내 몸과 밀착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밥과 부족한 듯한 하나의 반찬만으로도 김치를 그리워하지 않고 'masarap(맛있다)!'을 외치며 이 곳 음식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아침식사를 함께 살고 있는 필리핀 친구인 marlou가 만들어 주었다. 물론 대부분 맛있었지만 가끔은 분홍색 누들이라든가 식빵에 통조림 고기를 올려 먹는 등의 비주얼 쇼크를 받으며 아침식사가 힘들 때도 있었다.그리고 10월. 지금은 아띠 5명이 순서를 정해 매일 아침을 준비한다. 아침메뉴는 marlou가 주로 해 준 소세지, 라면,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에서 아띠들의 오징어볶음, 된장찌개, 김밥, 고추장 찌개 등의 아주 한국적인 냄새를 풍기는 음식들로 탈바꿈(?)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직접 아침식사를 준비하고부터 marlou는 아침식사 때 아예 수저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고, 밥을 3스푼 이상 뜨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marlou가 짠해서, 앞으로는 그를 위한 아침식사도 준비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푸가로에서 아이들을 위한 영양교육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아동들을 위한 영양교육의 주제로 '편식을 하지 말자.' '음식을 골고루 먹자.'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줄이자.' '불량식품을 먹지 말자.' 등이다. 한 편, 이 곳 푸가로에서는 매일 daycare center 아이들과, 체중미달 기준으로 선발된 아이들 100명을 위한 feeding program이 진행되는데, 이 현장에서는 옆에서 밥솥에 남은 밥풀이라도 달라며 우는 아이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토록 하루 한 끼가 간절한 아이들이 있는 이곳과, 한국의 영양교육 자료들만으로도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식품영양학적 현황은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다시 한 번 내가 얼마나 풍족한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자랐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었다.

끝.

편식이 심한 식품영양학과생
Dainey

Jun (진경) ‘필리피노의 음악 그리고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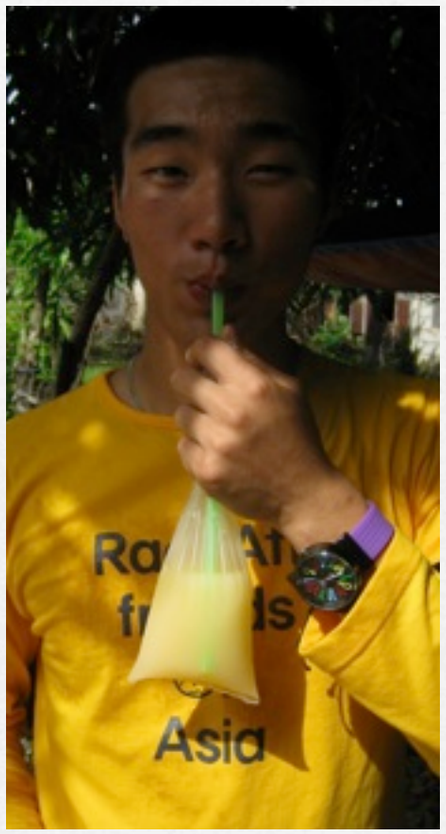
필리핀에서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는 운동은 아마 농구일 것이다. 길거리를 지나갈 때에도 항상 하던 운동은 농구였으며 농구코트는 늪처럼 생긴 곳부터 모래밭, 골목길 전봇대에 농구대만 달은 것도 보았고 몇몇 농구코트는 고운 시멘트로 잘 미싱된 곳도 있었다. 이처럼 환경을 따지지 않고 모두 농구를 즐긴다. 이들은 보통 오후 4시쯤부터(시원해질 무렴) 한 명씩 농구장으로 오기 시작한다. 경기를 하는 사람들,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 남녀노소 모두 농구를 즐기며 마을 주민들의 관계는 매일 매일 더욱 쌓아간다.

그밖에 내가 필리핀에서 본 운동들은 수영, 배구, 야구, 태권도, 축구, 탁구가 있었다. 우린 필리핀에 온 첫날 하루를 Manila YMCA에서 보냈다. 그 곳과 여기 Pangasinan YMCA안에는 야외 수영장이 있었으며 두 곳 모두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수영교육을 하고 있었다. 우리 라온아띠역시 수영수업을 받는 중이고 유아들에게 물에 대한 무서움을 놀이로 바꿔 같이 수영수업을 도우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태권도이다. 태권도의 인기는 매우 좋았으며 심지어 Pangasinan YMCA에서는 태권도 정규 수업으로 운영이 된지 오래되었고 사부(선생님)도 역시 필리핀 현지분이셨다. 난 필리핀 태권도 사부님께 어떻게 배우셨는지 물어보았고 대답하기로는 국기원에서 보낸 코리아 타이거즈(데몬스트레이터)들이 필리핀에서 태권도 홍보와 교육을 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나도 태권도를 할 줄 알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University of Luzon 교내 체육대회

Jun (진경) ‘필리피노의 음악 그리고 운동’

필리핀은 축제를 매우 자주하며 길게는 1주일이 넘게도 축제를 즐기기도 한다. 축제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음악과 춤. 길거리 행진을 할 때에도 크게 노래를 틀어놓으며 그 노래에 맞춰 퍼레이드도 한다. 내가 생각하는 필리피노(필리핀 사람)들은 음악이 그들의 삶에 한 일부라고 생각한다.



하얘지고 싶은 부코쥬스 매니아 Jun

어느 집들은 개인이 소장하는 노래방기계도 가지고 있으며, 마을주민이나 친척의 생일시 지인들이 모두 노래방기계 앞에 앉아 파티를 하며 노래를 부른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인기곡들이 서로 공유가 되며 관계가 더욱 형성된다. 그들은 날을 새며 부를 정도로 노래를 좋아한다.

학교들을 방문했을 때에도 각 학교마다 거의 치어리더와 관악대가 있었으며 직접 애국가와 퍼레이드를 선보였고 춤과 노래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 환영공연을 해주었다. 이런 공연들은 한국과 다르게 몇 일전부터 준비하여 드물게 하는 것이 아닌 매우 일반적인 행사이며 언제든지 특별손님들이 와도 바로 공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느 고등학교는 일반계열, 예술계열, 과학계열로 나누어 아이들의 재능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었다.

장래식장에서도 음악을 빼놓을 순 없었다. 우리나라는 검은 옷을 입고 무거운 공기와 매우 엄숙한 분위기지만 이곳은 매우 자유로운 복장을 입으며 운구차에서 신나는 노래가 크게나오고 그 뒤를 따라가는 가족과 친척들은 춤을 추며 따라간다.

나는 필리핀에서 생활한지 한 달이 넘었고 여기 Pangasinan YMCA에서 봉사활동하는 친구들과도 이제 매우 친하다. 난 봉사활동가 중 유난히 음악에 재능이 뛰어난 친구, 아니 음악에 천재인 친구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 친구의 이름은 Leo이며 그에게 아무도 악기다루는 방법을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Leo는 피아노,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어쿠스틱기타, 드럼 등 매우 많은 악기들을 다룰 줄 알며 심지어 작사, 작곡까지도 한다. 학교 밴드동아리생활을 해온 나의 입장에서 이 친구의 재능이 질투가 나기도하며, 여기서 머물기엔 너무 안타깝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분명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멘토처럼 선생님들께서 재능을 키워주거나 관리해주지만 필리핀에서는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어있지 않아 안타깝게 느낀다. 나는 대학교 동아리에 약간의 기금을 요청하였고 만약 기금이 모아진다면 새로운 드럼을 살 예정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Pangasinan YMCA에도 ‘라온아띠’ 라는 밴드를 만들고 지속해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끝.

MinAh(민아)

‘필리핀 조각모음’

필리핀에 오는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필리핀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앞서 겪었던 이런 저런 유쾌하지 않았던 추억과 사건이 필리핀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게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다. 필리핀 생활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다른 곳을 꿈꿨다. 필리핀에서 안좋은 일을 겪었던 나의 가족도 내가 필리핀에 가는 것을 많이 걱정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이웃을 만나러 가기 위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좋은가 고민도 했다. 하지만 라온아띠라는 이름으로 내가 구했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책임을 택하고 필리핀에 왔다. 정말 오기 싫었어! 라기 보다는 사실 내키지 않았던 것 일거다. 나에게 주어진 필리핀의 5개월 이외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다른 가능성을 자꾸만 생각했던 것이다.

카메라를 열심히 들었더니 사진이 없.엉.
Min-Ah

이 작은 글에 벌써 ‘필리핀’ 이라는 말이. 그리고 ‘싫었다’ 는 내 마음을 설명하는 말이 이렇게나 많은 것 처럼, 그렇게 좀 모자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필리핀의 삶이 나에게 다가온 것 같다. 쥐고 있고 온곳에 두르고 있는 많은 것을 좀 부수라고. 필리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디에 있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어떤 상태인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사실은 필리핀에서 지내는 것이 싫었던 게 아니라 필리핀이라는 ‘과거’ 를 미래에 미리 올려두고 못견뎌하는 내 자신이 더 막막했던 것 같다.

이 곳에서 나의 근육을 하나하나씩 다시 만지며 내가 왜 이곳에 던져졌는가를 알아가고 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지내보니 장소와 옆 사람에 상관없이 똑같이 드러나는 내 모습들을 발견한다. 좋은 것들은 기쁘게 미소 위에 올려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이제는 내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곳 생활에서 나는, 내가 그동안 배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리고 때로는 모르고 놓쳤던 것들을 다시 고민한다. 확실히 자세는 좀 바뀌었는데 아직도 덜그럭 거린다. 이렇게 흥미롭지 않은 자기 고백과 반성으로 필리핀 생활기를 연다. 그래야만 좀 더 방패를 풀 것 같기 때문이다!

이곳 사람들이 때로 말한다. “MinAh~ Sometimes,You think too much!” ..나는 멋쩍고 아리송하니 웃는다.

MinAh(민아)

‘필리핀 조각모음’

다른 나라를 여행하며 곳마다 그 곳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풍기는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태국사람들의 언어 속에서는 ‘마이빤라이~(괜찮아)’ 였다면, 아.. 필리핀에서는 단연 ‘Maybe’를 꼽겠다. 중요한 일정이 쉽게 미루어지고, 파티 음식을 잔뜩 준비했는데 절반의 사람들만이 온다거나, 당장 잠시 후에 할 일도 정확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들이 ‘Maybe’로 통하였다. 이제 우리들은 ‘Maybe’를 풍류로써 즐길 수 있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Maybe’의 아름다움을 조금은 안다. 이곳 사람들은 한국의 사회문화 안에서 때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크고 작은 일들을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이루어 내고, 너무 지치지 않게 일상을 지내며, 서로 약속과 일정 때문에 찡그리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이제 아띠들도 ‘Maybe’의 파도를 타는 법을 알아간다. 아! 그런데 이 것은 이곳 우리 Y만의 문화일 수도 있다. 아직까지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일하고 살고있는 사람들이 Y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매님들과의 한 때

보고서를 쓰다가 알았다. 사람들의 Full Name 보다 Ate, OO. Kuya, OO를 적고 있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어르신, 선생님들의 이름 전체를 모른다. 그냥 아떼 누구, 꾸야 누구이다. 아떼는 연상의 여성을 친근하게 이르는 한국말의 언니, 누나, 때로는 이모? 같은 말이고, 꾸야는 남성 호칭용이다. 많은 분들이 “Just call me Kuya(Ate).” 라 하시며 처음 만난 우리에게 정말 친근한 이모, 삼촌이 되어주셨다. 그런 많은 아떼와 꾸야들이 우리가 이곳에 편안하게 적응하고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 가도록 언제나 도와주신다. 그런 사실들이 즐겁고 행복하며 감사하다. 사실 이것은 라온아띠의 특권이기도 하다. 자원봉사자와 장학생 아이들이 때로는 어려워하며 Sir, ma’am 으로 만나는 분들 임을 보기 때문이다. 이곳 Y의 다양한 구성원이 아띠의 친구, 아떼, 꾸야가 되어간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직은 새 얼굴이지만 조금씩 그리고 때에 따라 이곳 사람들을 다른 모양으로도 한 번 잘 엮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재밌는 일들을 생각 해본다.

쓰레기와의 인연도 많다. 이곳에서 지내기 시작하자마자 아띠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눈 것이 쓰레기 문제였던 것 같다. 재활용과 보다 나은 처리를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다구판이 지대가 낮다는 점을 살짝 제쳐둔다면 길에 버려진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아 비가 올 때마다 길이 물로 넘치는 모습을 흔히 보았다. 또 다구판의 쓰레기가 모두 모여 쌓이는 Bonuan Dumpsite를 방문하고, 그 곳에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주우며 사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으니 쓰레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피부로 다가왔다.

MinAh(민아)

‘필리핀 조각모음’

지역 안에서 쓰레기 관리 시스템과 여러 문제점, 쓰레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를 알아보고, 필리핀의 학생들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도시의 쓰레기가 편리하게 흘러간 후 산이 되어 모여있는 Dumpsite를 오가면서, 그리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될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고 잊어버리는 모든 과정에 대한 풀기 어려운 고민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국제 사회가 필리핀을 쓰레기로 악명 높은 국가를 꼽는가 하면, 그러한 필리핀에 그리고 또 다른 가난한 나라 땅에 쓰레기를 돈 주고 실어 보내는 부유한 국가들이 있다. 해안가에 산처럼 쌓여 땅으로 바다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로 스며드는 쓰레기를 보고 참담해 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다시 필리핀 집에 돌아와 편하게 쓰레기를 생산하는 내가 있다. 적어도 편히 버린 채 영영 내곁을 떠난 쓰레기인 양 나 몰라라하지는 않는 나의 모습으로 조금 위안할 뿐이었다.

우리가 팡가시난 YMCA, 그리고 한국의 라온아띠 이름을 들고 이제 막 드나들기 시작한 Dumpsite는 그 바로 주변의 주민들도 그곳이 있다는 걸 거의 모를 정도로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으며, 선거철 표 수를 좇는 정치인들에 의하여 이런 저런 자그마한 선심성 해결책들이 시행되었다가 용두사미로 골조만 남기고 멈추어 있다. 정치 게임에 의한 약간의 완화, 이후의 다시 악화 그리고 늘 무관심의 공간이다. 우리는 조금씩 그곳 마을에 들어가고 있고, Dumpsite 그리고 나아가 쓰레기 문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활동들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 팀은 이제 4개월 안에 이곳을 떠나겠지만, 라온아띠를 통해 또 지역의 힘으로 쓰레기 문제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나비의 날개짓을 만들 수 있도록 첫 터를 잘 다지고 싶다. 시간은 빠르고도 유유히 흐르는 것이기에.

또 쓰레기를 다루며 나와 우리 팀은 한국의 쓰레기 문제를 다시 끌어 올렸다. 어렴풋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쓰레기를 돈내고 버려야 하는 종량제라던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외치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다. 지금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정착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이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성실히 하면서, 또 종류별로 거두어진 쓰레기가 그를 다시 효과적으로 이용할, 매우 산업화된 업체들에 의해 알뜰히 쓰이리라 믿으면서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것에 무감각해진 나를 깨달았고, 외국인으로써 필리핀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의 쓰레기 시스템에 대해서 정체불명의 신뢰만 가진 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역시 알게 되었다.

MinAh(민아)

‘필리핀 조각모음’

이 곳에서 쓰레기와 사람들을 둘러싼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를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데에 영화는 좋은 미디어이다.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과 만날 너의 데뷔작을 떠올려 보아라.’고 했던 첫 수업 선생님의 주문에 환경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묘사했던 일이 퍼뜩 떠올랐다. 어느새 자연스레 나는 그 길 가까이에 다가와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라온아띠로써 또 팀으로써의 역할과 행동의 범위 바깥에서 가능한 일일 것이다. 기간 이후에 이곳에 더 남는다면 어떨까?란 생각도 해보았다. 그 것의 다음 고민은 생활비이다. 누군가가 생활비를 책임져 주며 자유롭게 움직이고 꿈꾸고 행동할 수 있게 지지해 주는 지금의 생활은 정말 값진 것이다. 아무튼 아직 한달이 좀 넘게 이곳에 지내고 있는 나는 지금 적어두는 이 자리에 서 있다. Dumpsite의 일들 그리고 ‘End Poverty’라는 구호, 이 곳에서 새로이 만나 같이 뭘 할까? 궁리하고 있는 새 친구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하나의 큰 지점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필리핀에서 주운 남은 조각들을 기우려 한다. 루존대학교에 갔을 때 학생들의 공연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쏟은 일이 기억난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내 또래의 사람들이 각자의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구나, 알기야 알았지만, 그들의 관악 연주를 들으며 또 열정적인 춤 사위를 보며, 불현듯 마음으로 느낀 것이다. 오랫만인 감정이었다. 또 늘 생각하는 것은, 필리핀 사람들이 정말 재주가 많다는 것이다. 어느 자리에 가도 꼭 대단한 노래, 춤을 보게 된다. 또 잘하지 못하더라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 특히 고등학생들을 보면 한국의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생각난다. 한 번은 “한국도 이렇게 잘 놀지?” 하는 질문에 “만약 한국의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놀아 보라고 한다면 거의 한 두명 이외에는 나서지 않을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고등학교를 이미 오래전에 그만 둔 나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대학과 미래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은 고등학생 시기의 우리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 안에 갇혀있지 않은지? 그 때쯤, 노는 법을 영영 잃어버리는 게 아닌지. 상상을 해보았다.

고민도 있다. 나라간 경제 규모 차, 또 오랜 나의 소비 취향으로 인해 필리피노 친구들과 돈 씀씀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순간 때로 어색함. 영어로 수많은 미팅과 회의를 하는 필리핀 라온아띠 환경에서 유창한 영어를 가지지 못한 아쉬움. 거의 늘 팀으로 지내고 존재해야하는 것의 익숙치 않음. 보호받는 존재로써 제한되는 자유. 정말 반 가족처럼 지내는 Y식구들과의 살이가 때로 낯설어 질 때. 나를 배우게 하는 일들이며, 내가 앞으로 할 선택들의 미리보기가 되어주는 낯설음들일 것이다. “You think too much.” 의 다음 말은 이 것이었다.

“MinAh, You are young. You don’t need to be perfect. Just dare to do it!” 감사한 인연들이다. **끝.**

6. 뽀너스

Marlou의 이야기

Marlou(21)는 라온아띠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Y자원봉사자로, 아띠가 가는 곳은 항상 동행하고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을 담당해 주고 있는 친구이다. 그래서 Marlou는 필리핀팀 라온아띠 제 6의 멤버로 불리고 있다. 자. 이제 누구보다 아띠와 정신적 교감을 많이 나누고 있는 Marlou를 통해 아띠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When the first meet of Raonatti, I think we have good relationship of one each other, so I have confidence all of you, but I think i'm alone, because I can't understand what is your talking about, that's why sometimes if you chatting one each other here of Raonatti house, I live and I go outside, because I can not understand, what is your talking. Even do I stay long time inside of house. but i'm happy to company all of you, this past few days. And I think this coming next day and month, maybe I learn more all of you, and one of you, and I learn a lot of thing with raonatti 10th batch with you all. thank you :)

아띠들이 Marlou를 생각하며

아띠가 필리핀에 오기 전 했던 다짐 중 하나는 현지 사람들과 있을 때는 한국말로 대화하지 않기 였다. 하지만 이렇게 24시간을 함께 생활 하게 될 줄은.. 생각치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 보니 집에 오면 영어를 쓰기보다는 편한 한국말로 대화를 하게 되었고 함께 있는 Marlou는 우리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어 많이 답답하고 외로웠을 것이다. Marlou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 다행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우리와 늘 함께할 Marlou를 더욱 세심하게 생각하고 잘 지내야겠다. 24시간 외국어 쓰기는 힘들겠지만..... :)

감사합니다.

10월에 만나요!

:)